東大新聞

發行人 黃 泰 永
編輯人 兪 光 燮
印刷人 鄭 九 鎬
主幹 權 奇 悰
編輯局長 申 寬 浩
編輯部長 張 義 植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慶州大學
주소: 경북월성군현곡면
금장리707(681)
전화: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신규교수 6명任用

지난 1日 교원인사위원회서 결정

재임용 교수도 6名

韓炫교수등 3명 대우교수로

金慈中 조교수

南宮頊 조교수

趙巖 전임강사

학교당국에서는 지난 1일 학교로 신임교수 6명을 채용하는한편 6명의 재임용교수명단을확정, 발표했다.

교원인사위원회결정에따라 임명된 신임교수명단과 재임용교수, 대우교수명단은다음과같다.

◇新任교수

▲南宮頊 (理科大물리학과) 조교수▲金慈中 (理科大통계학과) 조교수▲趙巖 (工大산업공학과) 전임강사▲尹泰汝(경주대한의학과)조교수▲郭魯鳳 (경주대중어중문학과) 전임대우 ▲權泰植 (경주대경제학과) 전임대우

◇재임용교수

▲金翔圭 (工大토목공학과) 교수▲安恩明 (工大전자계산학과) 교수▲黃選植 (文科大철학과) 조교수▲金容旭 (農大농학과) 조교수▲韓韻煥 (사범대국어교육학과) 조교수▲蘇徹 (理科大통계학과) 전임강사

◇대우교수

▲韓炫 (경상대경영학과) 교수▲金裕松 (공대 산업공학과) 교수▲姜炯한 (사범대지리교육학과) 교수

한편 이번에 새로 임용된 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南宮頊

▲53년 충남홍주군출생▲72년 서울대 물리학과졸업▲76년 서울대 물리학과 이학석사▲83년 미국 인디아나대학 이학박사 취득

◇金慈中

▲54년 경남울산출생▲77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졸업▲82·84년 미국 퀸리조니아 대학원석사, 박사학위취득

◇趙巖

▲46년 부산시출생▲73년 부산수산대학교 이학석사취득▲76년 일본 와세다대학 공학석사▲78년 同大學박사과정수료▲82년 성균관대학 강사역임

◇尹泰汝

▲48년 서울출생▲73년경희대한의학과졸업▲75년 同大學 석사취득▲83년 同大學 박사학위취득

金艾學舍 사감에 薛永基교수 취임

慶州大學 「금강학사 舍監이·취임식」이 지난4일오후7시부터 신·구사감과사생 1백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 신임 薛永基(무역학과교수) 사감은 인사말을 통해 『철저한 시간엄수와 절제하는 생활, 외부인 출입통제에 사생들이 적극 협력해줄것』을당부하고 『편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공부하는 장학사로가 꾸겠다』고 말했다.

2학기 예산안 통과

써클보조비 前年比 7%증가

慶州大호국단

慶州大學 제6대 한도호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5일 운영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학기 총예산 2천4백10만2천8백64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6대 호국단의 사업기본목표 설정에 이어 예산심의에 들어갔는데 이날 통과된 각 학생회별 예산은 행정관리비 87만3천8백6원, 학·예술활동비 1천1백91만4천2백30원, 체육활동비 6백12만5천원, 취미및 레크레이션비 83만원, 학술세미나및 교육활동비 62만원, 새마을사업및 봉사활동비 35만원, 수련활동비 1백26만4천1백14원, 특별활동비 1백64만3천6백57원, 예비비 48만57원등이 되고있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이번 예산은 장학기금이 2%낮아진데서 「始林」 발간비 15%, 써클보조비는 7%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이날 예산심의를 마친 운영위원들은 교수학보 운영위원회 구호를 치며 교내시위를 벌였다.

지난 4일 오후 1時경 학교 교문에서 「굴욕외교반대」를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였다.

「굴욕외교반대」교내示威

30여명 호국단실서 철야농성도

지난 5日 호국단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본교생 2백여명은 지난 4·5양일간 「굴욕외교반대」를 대상으로 수강회만자를 접수한다.

獨문과 獨演정기공연

26·27日본교소극장서

독문과의 「제1회독어연극 정기공연」이 오는 26, 27일 양일간 본교 소극장에서 열린다.

연극을 통한 독일어의폭넓은 학습과 신설학과인독문과의 홍보를 목적으로하는 이번 공연작품은 Max Frisch의 「Andorra」로 이기주의적인간들의 조작된 인권에 의해 희생되는 한 자연인의 모습을 그리게된다.

한편 공연시간은 오후3시와 7시 각각 2차례이다.

敎수동정

▲金鎭煥 (신학과) 교수=지난 8月10日 일본 九州大세미나에서 「韓國佛敎가 日本佛敎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발표

▲李龍範 (사학과) 대학원장=파키스탄에서열리는 「티벳불교와 동아시아불교관계」학술세미나 참석차 지난6일 출국

▲朱宗垣 (농업경제학과) 교수=日本 經濟誌 經濟評論 8월호에 「日本經濟 趨勢加速說의 限界」라는 논문을 揭載

▲金丙植 (화학공학과) 교수=지난해 8月30日부터 1년동안 미국 코넬(Cornell) 大學에서 「소수성 膜을 이용한 抽出장치 개발에 관한 硏究」를 마치고 지난 31일 귀국.

알림

연휴관계로 인해 8893號 신문제작이 예정일보다 늦어짐을 양해드립니다.

本校에 2천6백여만원 기탁

학교發展基金 張元圭前교수등 14명이

본교에서 정년퇴임한 張元圭 (佛敎學科) 吳碩奎 (영문학과) 교수등 교수·직원 14명이 학교발전기금으로 2천6백23만원을 지난 4일 학교당국에 기탁했다.

南都泳총무처장은 『기탁자들의 높은 뜻을기려기념이 될만한 사업을 곧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금 기탁자 명단과 금액은 다음과같다.

▲徐廷柱=1백70만원▲張元圭=3백30만원▲吳碩奎=2백80만원▲李恭洙=2백78만원▲張庚鶴=1백78만원▲孔泰勳=1백70만원▲金郎泰=3백90만원▲徐基燮=1백1만원▲尹乙順=1백11만원▲徐廷甲=1백만원▲鄭璡=2백만원▲朴尙均=1백70만원▲沈光輔=1백15만원▲柳萬植=30만원.

化工科 시약창고설치

상하수도 공사도진행

「화학공학과 시약창고」가 약 1백3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곧 과대학 지하1층에 마련되었다.

이로인해 化工科 다섯명의 교수연구실에 산재해있던 시약과초자(硝子)를 한곳에 모은데서 전년도의 시약창고 협·실습에 따른 폐수와 독극물로 인한 부식성과 누수(漏水)가 적은 주철관으로대치오는20일경까지완공할 예정으로 있다.

國史科 추계정기답사

百濟文化圈 일원서

國史敎育科 「추계 정기답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金昌洙학과장을 비롯한 科소속교수 및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제문화권 일대에서 실시된다.

고적지의 실지유물 확인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게 되는 이번 답사는 백제문화권인 부여 공주등지를 살피게 되며, 문화유물에 대한 탐문도함께 실시하게 된다.

慶州大서 경제세미나

영남대등 7個大참가

慶州大學 경제학과 주최 「제3회 영남지역 대학생 경제학술 세미나」가 오는 28일오전 인문사회학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영남지역 각 대학 경제학과생들이 평소 익히고 연구한 학문을 자율적인 발표를 통해 더욱 심화 시키기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있는데 이번 발표회는 경북대·부산대등7개대학에서 참가, 경제학도간에 진지한 학문적 토론을 벌이게 된다.

行大院 東行院友발간

교수논단·수필등실어

행정대학원 院友紙인 「東行院友」 제2호가 지난 7월20일자로 발행되었다.

대판6면의 이번 호에는 교수논단으로 朴昌魯교수의 「發展과 社會的비용」등을 싣고 있으며, 국내외 기행록, 隨想, 行大院 뉴스등을 담고 있다.

취업전담 「취업계」 신설

慶州大 체계적 취업 보도위해

慶州大學 취업 업무를 전담하게될 「취업계」가 지난 1일 학생생활과 산하부서로 신설되었다.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졸업생들의 취업대책을위해 새로 신설된 취업계는 각종 취업정보 자료수집·교환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보도를 담당하게 된다. 慶州大學에는그동안 취업지도소 위원회가구성되어취업지도를 맡아왔으나 실질적인 취업에따라 취업계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行大院·東行院友발간

교수논단·수필등실어

행정대학원 院友紙인 「東行院友」 제2호가 지난 7월20일자로 발행되었다.

대판6면의 이번 호에는 교수논단으로 朴昌魯교수의 「發展과 社會的비용」등을 싣고 있으며, 국내외 기행록, 隨想, 行大院 뉴스등을 담고 있다.

社 告

第22回 東大新聞

學術賞 원고 募集

學生들의 學究熱과 創作熱을고취하기 위해 제정, 매년 가을마다 알찬 수확을 거둬온 本社 學術賞은 올해로 22회의 연륜을쌓게 되었읍니다. 전통과 권위에 빛나는 本 學術賞에 東國人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응모요령및 종목을 공고합니다.

▲人文科學賞 ▲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創作文學賞
※各分野別장려상있음

◇應募要領

▲人文科學·社會科學·自然科學分野=2백字원고지60枚內外 지도교수의 추천및 所屬學科學術論文에 限함
創作文學分野=<詩>5편이상, <小說> 60枚내외<戲曲>60枚내외
▲應募資格=本校및 慶州大學生에 限함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當選作발표와 함께 발함
▲施 賞=11월15일 예정. 상패및 상금20만원 (本賞) 10만원 (장려상)
▲作品제출기간=10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當選作발표=11월13일 (火) 本紙 紙上
1984년 9월 일

10月31日까지

東大新聞社

金思燁교수가 日「萬葉集」번역

한민족 古語硏究에 귀중자료

日本最古歌集인 「萬葉集」이 金思燁 (일본학 연구소장) 교수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 출간되었다.

총 4천5백여首중 8백여首가 먼저 번역된 일본고전문학의 최고봉인 「萬葉集」은, 7~8세기경의 것으로 신라향가의 영향이 짙어 우리민족의 古語와 풍속등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대적 해석에 아직도 많은 난점이 남아있는 이 연구를 위해 金교수는 『앞으로 4년간에 걸쳐 전체번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학 연구소에서는 金思燁교수의 「萬葉集의 노래와 鄕歌」 등 비롯한 10편의 논문을 실은 日本學」

一道 金裕松교수

오는15日 논문헌정식

一道 金裕松박사 정년퇴임기념 논문헌정식」이 오는 15일 열공학과 주최로 오후2시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14년간 本校에서 敎鞭을 지난달 31일자로 정년퇴임한 金교수의 한문적업적을 기리기위해 발행된 이번논문집에는 金교수가 그동안 발표했던 각종논문을 비롯 本校 삼공과의 權寧植·朴春燁교수, 辛承憲(啓明大) 교수등의 헌정논문이 실려 있다.

본교籠球部 4位

徐大成군 모범상차지

본교 농구부는 「84년도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4위를차지 갈보상을 수상했다.

전국 10개대학팀이 출전했던 본대회에서 승자준결승에 오르는등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으나 패자준결승경기에서 투지의 국민대에게 70대71로 패해 종합 4위에 머물렀다.

民俗劇硏 「탈춤강습」

전통문화 계승위해

민속극연극회주최 「하반기 탈춤 무료강습회」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학생회관 6층 제3회의실에서 열린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중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강습회는 18일까지 써클룸과 학생회관 1층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강회만자를 접수한다.

훨씬 오래가고, 훨씬 강력합니다.
우주감각의 은빛 건전지 로케트 알카

수명 최고10배의
다이나믹한 힘을 자랑하는
힘의 챔피언! 로케트알카

"좀더 수명이 오래가는 건전지는 없을까?"
"좀더 강력한 건전지는 없을까?"
휴대용 카세트를 가진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류의 소모가 큰 카세트의 경우 몇시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건전지의 수명이 다 돼 자주 갈아 주어야 했읍니다.
더우기 건전지에 드는 비용은 무시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속시원히 해결한 초고성능건전지 로케트 알카는 일반 망간건전지에 비해 수명은 최고 10배이면서 가격은 2.5배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카세트에는 카세트용 알카전지를 카메라에는 포토용 알카전지를 사용하세요.

건전지는 역시 로케트
株式會社 로케트電氣
■로케트 알카전지로 용돈을 절약하세요.

보리수

살 때와 죽을 때

한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버린 젊은 수행자가 늙은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은 조금도 더위를 느끼지 않습니까」라고. 찌는듯한 더위를 못이겨 쩔쩔매던 젊은 수행자는, 더위도 아랑곳없이 조용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참선에만 몰두하는 늙은 선사의 거룩한 모습에 감탄했다. 『더위야나 도 느끼고 있지』 늙은 선사의 대답이 다그렇더면, 어찌그더지도 조용히 앉아서 참선에 몰두할 수 있읍니까』 젊은 이는 다시 물었다. 그때 늙은 선사는 타이르듯이 한마디 했다. 『더울때는 철저하게 더위가 오면, 그 더위를 철이 와서 철저히 더위와 한 이날 행사에서 신임 薛永基(무역학과교수) 사감은 인사말을 통해 『철저한 시간엄수와 절제하는 생활, 외부인 출입통제에 사생들이 적극 협력해줄것』을당부하고 『편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공부하는 장학사로가 꾸겠다』고 말했다.

련이다. 아무리 힘겨운 노동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되면, 그 노동은 별로 힘겹게 느껴지지 않지만, 피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다닌것은 노동하게 되면, 그 노동은 실한 고통을 동반한다. 같은 달리기도 자발적으로 달리는 주인에게는 상쾌한 스포츠가 될수 있지만, 피동적으로 달리는 노예에겐는 그 아 자발적으로 죽어줄때 고통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차피 죽어야 하는 마당에서 구차하게 죽음을 요리조리 피하려다 죽음에게 죽임을 당할때, 거기에는 무서운 고통이 따른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徐景洙〉

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차피 살아야 인생이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 살아야할 인생도 시간적으로 한정된 한 세상이다. 한 세상을 자발적으로 훌륭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은 죽을 줄도 안다. 아무래도 죽어야 한는인생이면 섣불 자발적으로 죽어주는 것이 멋있는 죽음이다.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더위를 참는 것이 현명하다.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하는 것이 더위와 함께 산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더위와 맞서 싸우는 것이 더위가 주체가 되어 나를 피게 되면, 피동적으로 당하는 더위의 고통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今週一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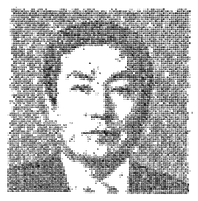
도를 행하는자는 이를테면 등불을들고 어두운 방에들어가는 것과같다.
그리하면 어둠은 곧 사라지고, 밝음에 가득차진다.
<佛敎聖典>

現代社會와 매스컴逆機能

權力者의 매스컴造作이 큰 폐단

先進國일수록 「言論의 自由」보장

〈行政院교수·사회심리학〉 鄭允武



Ⅰ

현대사회가 복잡하며 대규모의 사회인 만큼 그것을 특징우는 명칭도 다양하다. 예컨데 大衆社會 民主主義社會 資本主義社會 金體主義社會 高度産業社會 脫工業社會 管理社會 精報化社會 福祉社會등 실로 가지각색인 것이다.

이러한 명칭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나 강조점의 차이에서 생기게 된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성격의 여러 측면을 각각 표현하고 있기니와 「현대사회와 매스컴」이란 주제에 비추어 생각할때 이른바 「정보화사회」란 용어가 현대사회의 본질을 적절히 표상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란 한마디로 지식·정보량의 비약적인 증대를 특징으로하는 사회인 것이다. 지식·정보량은 흔히 증가하였으나 오늘날에는 15년지나면 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나아가 1985년에는 1965년의 50배의 정보량에까지 달한다고 추정하는자도있다. 특히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3년에배로 증가하여 정보는 벌랑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정보폭발 정보홍수라 하지 않을수없다.

일찌기 「맥루한 (M. Mcluhan) 은 TV出現의 문명론적 충격을 강조하고 있거니와 그에 의하면 오늘날의 6세의 어린이는 TV에 의해 戰前의 60세의 어른이 가진 양과 맞먹는 정도의 정보를 지닌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홍수는 이만큼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러가지 逆機能現象을 가져 오게 된다. 흔히들 現代社會는 情報化社會라기 보다 「情報過社會」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가 범람하여 그것이 한층 더 사회의 혼란에 박차를 가하며 참으로 가치있는 정보가 매몰되기 쉬운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대중이 적절한 정보를 알맞게 받아들여 저장하며 消化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時代에 살고있다. 말하자면 대중은 情報過多에서 오는 消化不良症에 걸리게 마련인 것이다.

Ⅱ

오늘날 發達된 資本主義에선 PR용의 팜프렛이 洪水와 같이 쏟아져 나온고 있다. 이러한 홍수와 같은정보는 일반대중이 직접 경험할수 없는 世界의 問題이기 때문에 기대나 포부만 높아져 現實의 행동이나 실적이 그것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들 寓話한 나라의 사람들은 욕구불만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른바 선진국사회에선는 매스컴의 발달로 보다 새로운 욕구를 자극하게 되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때 욕구불만에 빠지게 되는것이다.

매스컴의 매카니즘 예컨데 영화속의 주인공과 관객과의 동일화 (identfic acion) 의 매카니즘은 욕구를 대리만족시켜 준다는 뜻에서 약을 주지만 새로운 욕구를 자극시킨다는 데서 병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매스컴은 대중에게 병을주고 약을주는 惡循環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른바 願望과 實績과의 갭까지도 感覺하지 못하는 麻醉的 逆機能이 進行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문제에 관해 표면적으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표면적 피상적 관심은 대중적 무관심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매스컴을 接하지만 社會的 政治的 行動에 참가하는 일은 점점 적어 진다. 매스컴이 만들어 내는 카피의 세계 擬似的 환경과 關係를갖는 것이 실제적 行動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 안다는것과 현실의 問題에 대해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을 혼동하게된다.

이리하여 매스컴은 오늘날 가장유력한 사회적 현실이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엽적이 원망에 뒤따르지 못하며 불만이 축적되어 간다. 이러한 갭을 매스컴은 발전도상국에 생기게 한다.

따라서 심리적 可動性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있어서 필요조건이긴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매스컴의 도입과 병행해서 기타의 생활조건의향상이 연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균형이 잡히지않아 순조롭운 근대화가 진행되지 못한다.

여기에 발전도상국 대책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도적으론는 매스컴 산업을 경영하는 민간자본을 구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심어지는 이미지 내용에 있다. 즉 텔레비전 퍼스널리티가 정치가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른바 大論爭에서 論議된 것도 본질적으로 大統領으로서의 자격에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었던 것이며 나아가 TV 퍼스널리티를 형성하고 있는 육체적 심리적 연기적인 자질에 이르러선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얼굴모습 性的 魅力, 의젓한 態度, 奇問妙答과 같은 대통령의 資質에 無關係한 요소에의해 우리들의 판단은 歪曲되고 우리들의 태도는 영향을 받고있는 것이다.

1968년 日本의 參議院選擧에있어 이른바 탤런트후보라 불린 사람들이 大量의 票를 獲得하여 당선된 것은 TV퍼스널리티로서의 資質을 판단하는 기준이 점차 變質되고 있다는 徵候를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있어 TV이용범위가 확대됨에따라 텔레비전의 기능이란본질적인 문제를 더욱 해명할 필요가 있다. 즉 TV의 이용이 선거의 인기투표화 혹은 「힛 퍼레이드化」의 위험이없다고 할수없기 때문이다.

Ⅲ

이와 같이 情報의 過剩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소극적인 행동에로 대중을 몰아넣어 가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의 사생활이나 一擧手 一投足까지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되므로서 실각한 정치의 문제가 私生活化 (Personalige) 되어 문제의 論點이 흐려지게 될 위험이 많다.

Ⅳ

이미지에 의한 判斷이 選擧를 현저하게 左右 함은 事例는 1960年의 美國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TV討論을 들어있다. TV討論을 본 視聽者가 討論된 內容보다도 候補者가 어떻게 보인는가에 關心을 기울여 두고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候補者의 討論內容보다도 오히려 候補者들의 討論할에 있어서의 제스처 억양, 외모등에 더 강한 印象을 받았다는 事例가 많이 報告되고있다. 즉 TV討論은 政治問題를 사람들의 안밖에 까지 끌어들여 政治感을 親近한 존재로 만드는데 寄與하였다고 하지만 이유보다 퍼스널리티들,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는 그가 어떻게 보였는가를 印象짓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가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인 한 정치가의 인간상이 유권자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現代人은 정보의 홍수속에 묻혀 自我를 상실하면서 살고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국 매스컴의 내용이 개발도상국에 수입될때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고한다. D러너는 中近東6개국을 調査하고 엠파시 (Empathy) 의 增大라는것을 들었다.

엠파시란것은 원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용어이다. 러너는 자기확대의 매카니즘을 가르키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자기와 다른 자기를 상정할수 있는 능력이며 「心理的 可動性」 (Psychic mobility)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가동성을 지리적가동성이나 사회적 가동성과 아울러정체적인 발전도상국이 가동적인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데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가동성이야말로 매스컴에 의해 증대되어지는 것이다.

Ⅴ

지금까지는 폐쇄적인 근린집단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도 외국에서의매스컴에접하면그 시야는 확대되어 허리릇 여배우와 같은 자기를 상정하는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해서 매스컴은 발전도상국의 대중에대해서는 엠파시의 증대라고 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엠파시의 증대에 의해 오히려 욕구불만이 증대되기 쉽다.

인간의 만족도는 엽적과 願望과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원망만이 커서 엽적이 그에 따르지 못하면 만족도는 저하된다.

매스컴의 도입은 엠파시를 증대시키고 원망을 눈에 띄게 높이나 발전도상국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이나 기술적 발달을 배경으로 관고전문가가 그 테크닉을 대로 정치 분야에 적용시켜 특히 선거에 있어서 이미지선거 CM선거등의 용어가 매스컴에 등장케된 것이다.

즉 A社의 모타가 좋다고 하는것은 과학적 근거를 지닌 「知識」이아니라 광고 선전 등에 의해 不知中 믿어 버린 사이비 지식, 말하자면 이미지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구입과 상품이미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政治의 世界에 있어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다. 그것은 商業廣告 선전의 기술적 발달을 배경으로 광고전문가가 그 테크닉을 그대로 정치 분야에 적용시켜 특히 선거에 있어서 이미지선거 CM선거등의 용어가 매스컴에 등장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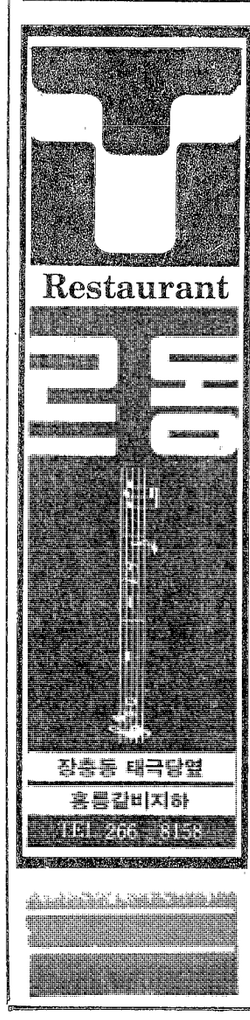
Ⅵ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회와 정치적 탄압이란 형태가 아니고 대중문화를 매개로하는 사회적 통제 조작이 대중이 알지못하는 가운데 작용하게된다. 이러한 통제나 조작의 수단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매스컴인 것이다.

더구나 大衆이 참가하는 현대정치에 있어선 民主制나 獨裁制를 막론하고 매스컴의 매개없이는 政治 그 자체가 존립할수 없게 되어있다. 대중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民主政治에서는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필요도 없거니와 대중의 자주성을 認定하지 않는 독재정치에서도 現代의 독재는 대중의 참가를 求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그것은 대중의 참가가 없으면 社會의 變革이나 改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중동원이 현대의 이른바 全體主義獨裁의 불가결의 요건이되며 대중동원을 위해선 매스컴이 불가결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매스컴의 존재는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와의 구별없이 현대의 대중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權力의 측에선 매스컴에 利用않으면 거의 영향력을 가질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든지 매스컴의 이용을 획책하며 그리하여 매스컴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 매스컴 관계자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흔히들 매스컴은 인간의 순환기계통에 비유된다. 그것은 순환하는 혈액과 같이 營養과 독물을 운반한다. 무엇을 운반하는 가를 체질과 신체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는 것과 같이 매스컴이 무엇을 운반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의 체질과·요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柳 津 監修
酒井善孝 編著
宋丞錫 譯著
就職 高考試 留學 大編入 大學院 碩博
英文解釋演習 1200題
英文作文法演習 1200題
390page·700page
4,000원 5,400원
本書의 內容
SIX PART
영문국역/내용파악/선택문제
완성문제/어휘문제/종합문제
●기본문제-A-(★)大入
●표준문제-B-(★★)학력
●난제문제-C-(★★★)최고
영어의 독해·말음·문법·작문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심하고 과학적 분석으로 어떤 난해한 시험에 부딪치도 해결할 수 있는 정어의 급소를 짚는 입체적인 훈련법.
●이름홍들讓破하시오!
圖1,200題 표딜잡 2,800원
圖1,200題 단어숙어1,400원
百萬社 266-8304

MBC 오발탄작가
尹青光 사회비평
으째야 좋을랑고
尹 青光著
-'84새 유행어-
"세상 참 으째야 좋을랑고"
1년에 10억 달라가 넘는 돈으로 외국에서 식량을 사다 먹으면서도, 농사 지을 만한 땅, 과수원이라도 할 만한 땅, 소라도 키울만한 땅을 수십만평씩 골프장으로 만들어 크린샷을 외쳐야만 지도급 인사인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서 성직자는 결코 입으로만 떠벌리며 편하게 먹고 살고 치부하려는 사기꾼들을위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고, 개기름이 번지르르 흐르는 얼굴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성직자,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 〈다방보다도 더 많은 교회〉 중에서

"칼날같은 시각, 통쾌한 비평"
값 2800원
東國出版社 ☎725-6198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 津 敎授 著
규문도해
英語構文論
●英語構文法을 모르고서는 會話·讀解·作文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英語原書를 줄 읽어보겠다는 사람은 構文法 연구가 가장 긴요한 일이다.
양장미본 ₩4,800
TOEFL-VOCABULARY & TOEIC이 책들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법부터 연구하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 ?
지상강의-
기초 영어구문론
₩3,000
●아무리 Conversation 이 급해도
●아무리 hearing 이 급해도 영어연구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기초구문론으로부터 !!!
百萬社 266-8304 서울·종로 6가 267

예비군 2일차 사격교육 소집통보

예비군설치법 제6조및 동시행령 제13조에 의거 84년도 2일차교육을 아래와같이 소집함

1. 교육대상 : 전예비군 학생및 교직원
2.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자
   가. 소집명제 처분된 미필보충역 (1·2·3·4학년및 교직원포함)
   나. 84년 1월 1일이후 전역한 예비역 (병및하사관, 장교)
   ※단84년 1월 1일이후 전역자라도 보충역으로 방위병제대자는 교육에 필히 응소해야함
   다. 84년 1월 1일이후 등원훈련을 필한자
   ※상기 교육대상에서 제외된자는 학생과에 훈련보류원을 제출할것 (소정양식 : 예비군 본부에서 수령작성 84년 9월18일까지제출)
3. 교육일정
   가. 기간 : 9월15일 (토요일) 08시~17시
   나. 장소 : 동천사격장
   다. 과목 : 사격및 사격술 예비훈련
   단, 교육훈련을 아래와 같이 소집함
   08시도착학급 {1중대 (불미, 국문, 영문. 일문, 중문) / 2중대 (한문, 국사, 고미사, 법, 행정, 경제)}
   12시도착학급 {3중대 (무역, 경영, 관광경영, 회계) / 4중대 (조경, 수교, 한의) / 교직원소대}

※특별한 사유가있는 대원은 예비군본부에 문의바람

유의사항 1) 사복착용 예비군복지참 주민등록증 병역수첩지참
2) 지연도착자는 불참으로 간주함
3) 보충교육은 현역군부대에서 실시함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신착 도서안내

—중앙도서관 제공—

◇國內書

經濟 經營 數學/李孝求等著
敎養社會學/Broom, Leonard著, 梁鍾會譯
微視經濟學/朴洪立著
美國行政法의 再構成/Stewart, Richard B著, 尹世昌譯
生産管理論/片仁範著
計算機와 論理回路/韓判岩編
經典成立論/渡邊照宏著, 金無得譯
韓國演劇의 美學/柳敏榮著
世界演劇의 美學/李泰柱著
孫晋泰先生全集/孫晋泰著
古典文學精選/金文基著
韓國方言學/崔鶴根著
韓國古詩律格硏究/洪在烋著
韓國文化傳統論/金哲俊著
韓國文集解題 : 嶺南地方/景仁文化社刊
연극입문/A·류우크스著 : 呂石基譯
비평론/G·하프著, 고정자譯
現代戲曲論/Klotz著, 宋倫燁譯
현대드라마의 이론/쏜다著, 宋東準譯
그림극의 制作과 實演의 實際/南炯弼著

◇西洋書

Automotive Pollution control catoalysts and devices /by Marshall Sittig.
Catalysis/by John R.Anderson and Michel Boudart.
Fertilizer industry/by Marshall Sittig.
Diffusion and defect data/by F.H.Wohlbier.
Solid state Physics/by Frederick Seitz and David Turnbull.
Advances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by Paul Greebler and Ernest J.Henley.
Lecture notes in physics.
Springer series in optical sciences.
Topics in current physics.
Die Deutsche literature band.
Naturalismus/by Günther Mahal.

시설로도 규모로도 단연 으뜸입니다.
영진외국어학원
大学生·成人
英国人会話 VOC.22000 日本語読本
생활영어 綜合英語 日本語会話
New English 영어실력기초 ダイジェスト
기초회화 스페인語 프랑스語
이재욱TOEFL 中国語 独逸語
회신에서 안국동쪽 200m·제주은행건너편
725/3939·2636

1학년 교양강좌 개최공고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84학년도 제2학기 교양강좌를 실시하니 전원 참석하기 바랍니다.

아 래

회수	일	시	장 소	해당대학	연사및연제
1회	9. 12(水)	9:00~9:50	중강당	문리대 농과대 사범대	미달성정주교수<동국전통과문학>
	9. 13(木)	9:00~9:50	〃	불교대 법정대 경상대 공과대	〃
2회	9. 19(水)	09:00~09:50	〃	문리대 농과대 사범대	이병주교수<동국인의자세>
	9. 20(木)	09:00~09:50	〃	불교대 법정대 경상대 공과대	〃

※당일 출석확인함.

1984년 9월 5일

학생처장

教育內實과 시설擴充

孫海睦 〈法政大교수·刑事法〉

사설

學校 敎育이 正常的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 져야 할 조건들이 따르다. 이를 일일이 열거 하자면수 없이 많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몇가지만 든다면 첫째, 배울을 渴望하는 學生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학생들에게 성의를 다해서 배울을 돕고 가르쳐야할 先生이 必要하다. 敎育은 우선 이 兩者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인들의 만남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있어야 할 것이 충분한 敎育媒介體와 쾌적한 만남의 「場」인것이다. 여기서 말한 교육매개체란 교육내용이 담긴 각종 書籍과 實驗 實習을 위한 교재 교구를 말하며, 교육의 장이란 강의실을 비롯한 실험실 습장, 도서관및 그 밖의 휴식 공간을 포함한 부대 시설을 의미 한다. 또한 없어서 안될것은 교육생활에 필요한 제반 규칙과 제도를제정하고, 운영하며, 施設物을관리하고, 각 가지 교육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合理的 이고도 一貫된 「行政體制」라고 하겠다.

이상 열거한 것들이 학교라는 特殊目的을 지닌 組織體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基本的 條件들 인 것이다.

이 조건들 중에서 언느 하나라도 敎育의 성과는 그만큼 빈약하거나 결여된다면 敎育의 성과는 그만큼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이들 조건을 편의상 구분하면 施設物들과 같이 바로 눈에보이는 物理的인 것과, 얼핏 눈에는 나타나지 않는 非物理的인 것들이 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 學校는 廣州캠퍼스 建立이라는 開校이래 가장 큰 事業을 수행하면서도 東國館의 신축등 많은 財政的 투입을 캠퍼스의 시설들이 서울 캠퍼스의 확충에도 많은 보탬을 해왔다. 지난 학기말과 금학기 초에 걸쳐 完了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만 보더라도 각종 考試班 학생들의 연구실로 사용될 桂山考試學舍가 완공 되었으며, 學林館장 교체되어 강의실밖의 소음도 차단되고, 건물의 면모가 새로와 졌다.

아울러 동건물 밖의 통행로가 말끔히 포장되어 통행의 편리는 물론, 건물 내부 취의 준복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病狀까지도 알아 채지 못할 정도인 것이다.

한편 廣州 캠퍼스에도 학생회관 시록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며, 지난달24일에는 실내 체육관 新築起工式이 있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휴식 공간 확충및 조경, 복지시설의 개선등 크고 작은 일들이 서울과 경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있다. 이와같이 계속적인 시설 개선및 확충은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참으로 바람직한일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物理的환경의 조성, 그것은 敎育의 必要條件일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 敎育의 成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일이다. 비유컨대 교육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없이 「하드 웨어」의 발달만으로 조화로운 敎育이 이루어 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모두다 아는 事實이지만 한 學校의 評價는 그 學校의 敎育的水準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物理的 환경의 개선에는 두뇌의 활용에 대해서 받드시 적절한 투입이 따라야 하지만 그 밖의 비물리적 敎育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일의 세밀한 分析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과감한 政策을 펼쳐나가야만 할것이다.

建物의 增·改築 또는 新築을 위해서 그리고 校庭못 조경을 위해서 각종諮問委員들의 硏究와 결토를거치는 愼重性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愼重性을 교육의 非物理的條件인 소위 교육의 「內實」을 위해선도 다 방면으로 적극적인 활용이되어야 할 것이며, 그보다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미래의 肯定的 評價를 받기 위해 現在를 이끌어 가는 우리 東國人 全體의 예리한洞察力과 굳은 實踐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있다.

自然과 人間

孫海睦 〈法政大교수·刑事法〉

대학관語

지루하게 두더웠던 여름도 어제는 벌써 떠나간것같다. 그러나 워낙 연속된 酷暑라 그런지 아직도 머리속에는 더위에 지쳐버린 기억들이 생생하다. 그래서 나는 開學初에 만나는 동료교수나 학생들에게 한다는 인사말이 금년 여름 말함은 더위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고 웃음으로 농을 하였다.

經濟的여유가 있어 냉방시설이 되어있는 분들은 여름방학을 유효하게 시간을 보내겠지만 냉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消日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역시 무슨 말 못하였다. 나 역시 무슨 말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으며, 工大生들의 실험실습에 불편을 덜기위해 元興館의 각종 배관교체 공사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더위를 잊기도전인 엊마전 또暴雨를 만났다. 水害가 어만 저만이 아닌모양이다. M洞에 사는 친구를 찾아 갔더니 虛脫·落心하여 아무 말도하지 못하였다. 나 역시 무슨 말 위로를 해야 할지 생각이나 지 않았다. 또 한번 우리는 自然앞에 무릎을 꿇고 말것인가.

이번에 洪水을 보고있는 어떤이는 人智가 아무리 高度로 발달하여도 自然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自然의 힘을 두고 전에부터 생각하든것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우리人間은 自然의 素材와 能力을 많이 이용하고 해택을 받고있다. 그러한 自然을 우리들의 誠意있는 努力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利益을 볼수 있다. 아무런 反對給付나 對價를 요구하지 않고 무한한 惠澤을 입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무한한 감사를 해야한다. 자연에게도 불구하고 평소에 인간은 오만스럽게도 감사할 줄 모른다. 오히려 자연의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치 채권의 利息을 요구함듯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을 얻어내려고 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자연의 소재를 낭용하지 말고 자연의 능력을 적당히 이용할줄 아야 할 것이며, 그보다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능력을 근대화의 지표라는 세가지 지표를 근대화의 지표로 진행되는바를 言論도 자유로와 진다는 것이 증명되고있다.

이렇게 해서 發展途上國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매스컴이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만 동시에 國民生活의 모든 면이 병행해서 변동해 가는 것이 필요해 지고있는 것이다.

결국 「R·닉슨」이 지적한 言論의 自由의 학보는 1인당國民所得이 높고 문맹률이 낮고 매스미디어의 보급률이 높은 나라에 있어서 실현되는 경향이 높은 것이며 이러한 세가지 지표를 근대화의 지표라 생각하면 近代化가 진행되는바를 言論도 자유로와 진다는 것이 증명되고있다.

이렇게 해서 發展途上國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매스컴이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만 동시에 國民生活의 모든면이 병행해서 변동해 가는 것이 필요해 지고있는 것이다.

시설로도 규모로도 단연 으뜸입니다.
영진외국어학원
大学生·成人
英国人会話 VOC.22000 日本語読本
생활영어 綜合英語 日本語会話
New English 영어실력기초 ダイジェスト
기초회화 스페인語 프랑스語
이재욱TOEFL 中国語 独逸語
회신에서 안국동쪽 200m·제주은행건너편
725/3939·2636

성적평가제 手術

"절대평가 실시 될듯"

상대평가 한문적 영역 축소 조래

신뢰바탕으로한 평가방법 바람직

점수에급급한 "학점노예들"

大學에서의 성적평가는 중고등학교때와는 本質的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대학의 학문탐구가 타인이 이룩해놓은 학문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고등학교때까지의 암기식이나 주입식교육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넓히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학문적 연구는 타인에 의해 평가되며, 가장 정당한 평가란 개인이 연구하고 학습한 만큼의 성적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난 81년 졸업정원제실시 이후 대학의 성적평가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됨에따라 지난 학기까지 대학인들은 상대평가에의해 점수를 획득했다。

상대평가란, 한 집단을 대상으로 각 등급마다 일정한 비율이 매겨져 그 범위내에서 성적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칫하면 대학이 여태껏 추구해온 학문의 무한성과 창의력을저해시킬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 또 대학인으로 지녀야할 일정한 학문적 수준에 도달했을때 좋은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성을 결부시킬때 학문의 영역을 축소시킬수도있는것이다。

지난 학기本校최고 득점자중 4·5만점에 4·5를 획득한 학생이 무려 2명이나 고 있는데, 4·5를 획득한 수석 2명이 대학인으로 수석을 했을뿐 그 분야의 학문에서 완벽하다는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상대평가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것중의 하나가 바로 사제지간이나 같은 학우지간의 불신감 조성이다。 성적평가가 한 집단내의 상대성을 띠고 있기에 학생들이 성적에 민감해질수밖에없다。 이로인해 흔히들 대학생활을 「성적의 노예」라고 말하기도 한다。 학문적 실도가 무시된 점수따기에 급급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절대평가는 선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절대평가를 실시한다할지라도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

모든 평가는 나름대로의 특수성과 주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대학평가가 단답형이거나 객관식 출제가 아닌 주관적 논술형일 경우에 더욱 심하다。 각교수가 지니고 있는 학문적 견해가 다르기때문에 학문을 대한는방법과 강의 내용과 성적평가 기준은 다를 것이다。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교수의 성적 평가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이동상태이다。

현재 매학기 강의 시작과 함께 강의원수의 현저한 차가 생겨 극단적인 예로 폐강을 위해 학생들의 이동상태이다。 현상의 대책마련을 위해 학교당국에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컴퓨터의 이상부분만 정정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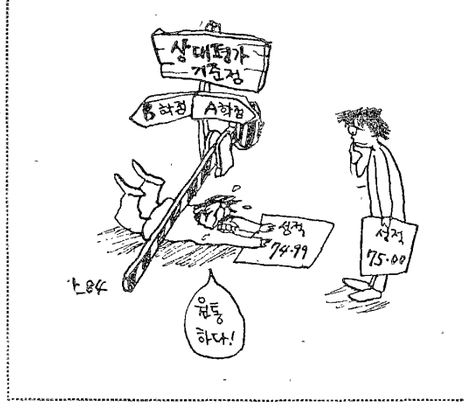
현재 S大와 K大에서 이번학기부터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의 개념을 도입한 절충형 상대평가 실시가 논의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절대평가 실시에 대한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이번 학기초천체교수회의에서 金鍾遊교무처장은 「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절대평가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바 있으며학생들 역시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있었다。

사실 평가에 있어 완벽한 절대평가도 상대평가도 존재할수는 없다。 이것은 평가를 하는 교수의 고유의 권한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대학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좀더 바람직한 평가방법이아닌가싶다。

한편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이 사회에서 대학의 몫이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가 안타깝다。 이런 단적인 예는 현재 문교부에서 실시하고있는 「순위고사」와 각 기업체의 「입사시험」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라면 대학이 어떤 평가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하든 평가는 그 자체로 존속할뿐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같이 가장 이상적인 성적평가란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에 근접하기위한 학문이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이 노력한만큼 얻어지는 절대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할것이다。

〈홀주연 記者〉



국내유일 회계연구소 新設

본교에 會計硏究所가 지난4일 문교부인가를 받아 신설, 운영되고 있다。

국내대학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同연구소에서는 전국 1천4백여명에 달하는 공인회계사중에서 활동하고있는 공인회계사 1천2백여명에 대한 재교육과 기업체 전문직종사자에 대해 연수 등을 하게된다。

또한 同연구소의 사업계획을 보면 전문직, 공인회계사의 재교육, 회계이론비교연구, 감사, 세무등의 논문집발간및 연구사업이 1차로 올해부터 진행하게 된다。

한편 同연구소의 소장에는 尹鍾安(회계과) 교수가 내정되었으며, 위원및 간사는 다음과 같다。

▲소장=尹鍾安(회계과)
▲위원=趙昌華(회계과)、金奚疇(〃)、鄭龍根(〃)
▲간사=黃韻浩(회계과)

해설 소가 設立됨으로써 본교의 연구소 활성화가 기대되며 他연구소와는 다른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同연구소에서는 공인회계사(CPA)와 기업체중견전문인들을대상으로 연수를통해 재교육시키게 된다。

소장으로 내정된 윤종안(회계과) 교수는 「모대학에서 설치운영해오던것을 이번에 우리학교에유치했다는」며 올해부터 본교에서처룬 공인회계사시험을 예로들며동 연구소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사업계획을보면 CPA재교육, 강연회개최, 논문집출판, 기업전문인연수등이며 오는21일 연수개강과함께 연구소활동을 시작하게된다。 직접 본교 재학생에게는 관련지어질수는 없지만 기업인에게 학교를 선전시키고 CPA지망생에게도 좋은 방향진로를 제시해 줄수있을것으로 기대된다。

慶州大 건설공사 활발

학생회관 골조工事 끝내

慶州대학의 건설공사가 2학기들어서도 계속 활기를 띠고있다。

지난 4월20일 기공식을 가진 학생회관공사는 현재 전체공정의 40%로 골조공사와 콘크리트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서서히 그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설계된 학생회관은 오는11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내부공사만을 남기고 있다。

또한 지난달24일 기공식을 가진 대강당격 체육관 창인데 내년3월 전국소년체전전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온 경대교 진입로 공사도 지난20부터 재개되어 현재 시내아파트 단지쪽에서부터 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진입로 공사 착수될 전망이다。

교직원所藏 「古美術品展」 博物館서 출품작품 접수

박물관에서는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교직원소장 古美術展」에따른 교직원의 소장품 출품신청서를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교직원 상호간의 작품감상과 친선도모를 위해 열리게될 이번 작품전의 출품내용은 서화, 조각, 공예 등으로 19C이전 작품이어야하는데 작품반입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이다。

써클 사업계획서접수 慶州大, 오는15日까지

慶州大學 학생생활과에서는 「84학년도 2학기 써클사업계획서」를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접수하고있다。

학생생활과에 따르면 기존 24개 써클의 경우, 84학년도 1학기실적보고서와 84학년도 2학기 사업계획서, 일원및 회원명단, 개정회칙등의 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고있는데, 서류미제출써클은 계속활동의사가 없는것으로간주, 써클활동이 일체 중단되게된다。

한편 신규써클의 경우는 실적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2학기 등록현황 집계

본교80%, 경주대 92%등록

84학년도 2학기 등록이 지난 5일로 마감되었다。 총투처에 따르면 법정수납마감일인 5일 현재 본교의 경우 법정인원 1만4천77명중 8천4백3명이 등록, 80%의 등록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학기 등록은 지난달의 수해로 8日까지 연기, 수납하기로 했는데 8日이후 추가등록부터 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원을 제출하여 오는 22일까지 등록하도록했다。

경주대학의 경우는 학교측의 민족자는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 연기로 예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성금및 물품은 다음과 같다。

▲關西天(行大院원장) ‖ 50만원
▲李瑛雨(行大院학감) ‖ 15구좌
▲關丙璇(총학생회장) ‖ 10구좌
▲李載瑚(학생회부회장) ‖ 書架2組
▲朴晴日(33기회장) ‖ 〃
▲朴熹(학생회부회장) ‖ 〃
▲黃正洙(학생회본교부장) ‖ 〃
▲河泰龍(학생회학술부장) ‖ 도서2백권

• 천장회의를거쳐결정한다。

한편 慶州大學도 지난5일 2학기등록을 마감했는데 총 5천8백14명중 4천2백2명이 등록, 92%의 등록률을 보였다。

行大院 전용도서실 곧 설치 募書기금답지…年末쯤 개설

행정대학원의 전용도서실이 곧 설치될 전망이다。

行大院生의 충원도서 기금은 이번에 5%씩을 적립해 올한 장학기금을 이번에 2%로 줄인것으로 『적은것이 좋을때도있지만 장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정대학원 학생회부회장 이은 지난5일의 호국단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3代 호국단부터 총예산중 5%씩을 적립해 올한 장학기금을 이번에 2%로 줄인것으로 『적은것이 좋을때도있지만 장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정대학원 학생회부회장 이은 지난5일의 호국단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3代 호국단부터 총예산중 5%씩을 적립해 올한 장학기금을 이번에 2%로 줄인것으로 『적은것이 좋을때도있지만 장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동덕 미술관서 吳京煥교수 15년만에 개인전

「經營東友」발간

本校 吳京煥(미술과) 교수의 개인전 「오후·공간·물질展」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안국동동덕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69년 첫 개인전 이후 15년만에 갖는 이번개인전에는 吳교수의 독특한 작품세계인 우주와 공간을 기하학적인 화면으로 제작한 「물질과 공간」 등 작품 30여점이 전시될예정이다。

「經營東友」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경영에관한 논문들을 수록, 발행해오고있는데 이번2호에는 제4회 「국제경영강좌」내용등 경영관계 논문다수와 時論·講演 등 총40여편의 글들이 실려있다。

學生硏 현대사조강좌 「오늘의세계…」 주제

학생생활연구소 주최 「제30회 현대사조강좌」가 美聲淵(외국어大·철학과) 교수를 연사로 「오늘의 세계와 우리의 좌표」란 연제아래 오는 24일 오후3시부터 학림관소강당에서열린다。

이번 공개강좌는 2학기에 들어 첫 실시되는 것이며 鄭址鎬소장은 「本 공개강좌는 매해 학생들이 좋아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慶州大 학생회관 골조工事 끝내

한 올바른 지식들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제토의에이어 「[illegible]

회전무대

금강을서 잇따른 文化財출토

○…따스한 가을햇살이 눈을부시게하는 금강을 慶州大 캠퍼스에서 先人들의 숨결이랄수 있는 각종 문화재들이 잇따라 출토돼 瑞氣어린 땅임을 다시 느끼게했는데…。

이곳 경주대 캠퍼스에서는 금년만해도 학생회관, 체육관 공사중 지난2월에 麗代항아리등 10여점이 발굴된데 이어 지난8월 초엔 통일신라시대의 骨壺2점, 또 지난5일 고려청자1점이 출토된데등 가히 유서깊은 明堂(?) 자리임을 입증。

덩우기 50년전 이곳에선 임신서기석이 출토된 적이 있어 연이은 유물출토에 C과K문은 『경주대학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地下발굴관도 있단』고까지 비화시키기도。

5千年을 헤아리는 古都 慶州 캠퍼스에서의 연이은 文化財출토는 경사스럽기만 한데, 이에따른학교당국의철저한 보관이 요청되며 아울러 우리학생들은 계속되는 풍성한 문화재 출토에 벅차가는 뜻을 한편학의 결실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비비웅 五里霧中(?)

○…金熺에 관계된 얘기는 피차 나누기가 꺼끄럽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 회전무대구 한마디。

매학기 개강과 함께 자주 오르내리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학회비인데 工大 S학과의 한 학형은 『1학기내 학회는 단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학회비징발(?)이 웬말이냐』는것 또 걷혀 진 학회비는 과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학형은 과대표 한사람뿐 이라는 아이러니컬한 내막(?)의 정체는 뭔지도 자못궁금하다고。

학회비를 내야되는 것이 학생의 의무라면 학회비사용은 또한 알아야 될 권리인데 도대체 이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게시판은 무용지물인가?

○…학내 주요행사를 게시판을통해 공개하고 있는것은 만인이 다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 게시판 공고에 부관심한 한 학형이 휴학기간을 놓쳐 제적당하게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회전무대구 관계교직원께 구제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자 『지난 7월부터 게시하고 신문에도 공고한 휴학안내문은 무용지물입니까』라는反問이고 보면 게시판의 올바른사용부터 계몽되어야 할듯 합니다。

「입」이 있었도 「뭍」못한는 時代가 아닌, 「눈」이 있어도 「보지」못하는 時代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요。

믿을건 「나 자신뿐」

○…「인간은 망각속에서산다」는 말이있지만, 아무리 잊으려해도 잊혀지지않는 「기억」으로 쓸쓸하기만 한데…

지난 5일에 있었던 학대시위때 「동민추」부위원장을 비롯한몇몇 학형들의 행방이 묘연해진사태가 빚어졌던것이 바로그것。

교내에서 사라진 학형들을 보고 학학형은 『학생들의 시위만류에는 민감한 교직원들이 정작학생들의 보호는 뒷전』이라고 분개하기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있지만 요즘 세상에 믿을 것이 있다면 오직 「나 자신뿐」이 아닌가싶어 더욱우울。

잇따른 文化財 풍성…勉學결실도 풍족하길

한자리 숫자도 숫자나름

○…한자리 숫자의 물가등 적은것이 좋은것으로만 여기고있는 요즈음, 이를 딱히 좋은것이라 할수만 없는 慶州대 호국단 예산중 장학기금이 5%에서 2%로 삭감되어버려 학형들의 빈축을 샀는데。

이는 지난5일의 호국단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3代 호국단부터 총예산중 5%씩을 적립해 올한 장학기금을 이번에 2%로 줄인것으로 『적은것이 좋을때도있지만 장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실수다 이런 때는 積小成大보다는 진정한 多多益善이 더좋을듯 싶다는 말이 있다。

명교수·종로외국어학원·명강의
사명감을 다하는 명교수·명강의
종로 外國語 학원
Jong-Ro Foreign Language Institute
종로학원 가족은
2000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정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신 외국어교육은 위하여 전통을 이어받고
신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전통을 이어간다
日語 쯔야꼬 | 英語 오석봉 | ALC미인회화
Mr. Marc | Mr. Cannon
TOEFL 이익훈 | TOEFL | VOCA
종영 김계영 | 영실 구성근
생영 윤장원 | E·F·C·L | 日語 이기향
漢文 이래현 | TIME
불어 정인자 | M·Cloud | 中國語 설민기
독어 한영근 | 서어 정순봉
단편 소설반 | TOEFL L/C | NHK청취
日語다이제스트 | 개인·출장지도
상담 및 안내 : 722-8381~2 : 724-1817
현재 접수중(각반 정원제 엄수)
종각화신뒤 30m 지점 구 대일학원건물 2층~4층
전통의 종로외국어학원 명문의

大學英語
教養, 留学, 就職, 大学院試験準備
開講 ⇨ 10月2日
(선착순등록마감)
李在玉TOEFL
아카데미TOEFL
大学生TOEFL
Vocabulary 2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釈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会話 TIME
基礎英語会話 성문綜合英語,
三位一体 綜合英文解釈
민병철生活英語, 美国生活英語
英語実力基礎, 大学院受験英語
美国語Hearing GRE, GMAT
貿易英語 TOEIC 基本英語
綜合日本語 (各種試験対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東京日本語
高級日語, 基礎 日語会話
ダイジェスト, 日語高級会話
独語文法宗成 프랑스 語
서반아語, 中國語
院長: 文昌淳
종로2가 종각뒤편 724-2442·722-9226
英·日·独
時事英語學院

貿易英語特講
(1, 2급 대비)
11월초 시험박두
강의내용(2개월 코-스)
① Business Letter, Telex 및 Cable의 Effective Writing 중점지도
② 기타 무역 실비
강의시간 : 저녁 7시, 8시
담당강사/성 남수 선생
종로2가 종각뒤 722-9226, 724-2442
時事英語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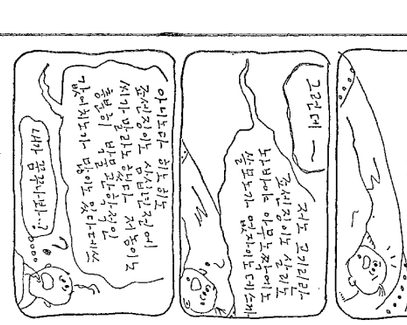
88을 전후 국제적기술자정규교육
남여 칵텔 기능 BARTENDER
"칵텔정규학원 국내 단하나뿐임
정규CERTIFIES 교부
◆국가 자격有 14년 선배들 후배 이끔
● 고소득 야간근무
● 여성기술인 부족
● L.A 국제칵텔 학교 스크린교육
● 칵텔시음
● 웨스턴 시설
● 전국적 빠텐안내
※시청→신축 중앙일보본사→서소문 고가도로옆
관인 國際칵텔 교육 752-7244 학원 7857
김호남 원장: 앙주칵텔著 부산42-1004

軍·행정병 모집
자격 ‖ 각군 17~26세 고졸이상(해군중졸이상)
특전 ‖ 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전형을 거쳐입대(교련혜택받음)(복학조절가능)
육·해군 참모총장 위촉서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펜 글씨 차트, 도안
▲수료후 취업알선 관 종로1가 버스정류장 무과수 제과 2층
▲개인지도식으로 지도함 ▲칵과초보자환영 기초부터
722-5346
725-3771

大學人의 休息處 DISCO THEQUE
코파카바나
最善의 學究人
最高의 浪漫人
活動力있는
大學人들만이
無言의 對話를
나눌수 있는곳.
쉬고 싶을때
表現하고 싶을때
大學人들만이
즐거운 時間을
가질수 있는곳.
—코파카바나—
입장료 : 2,500원
(무교동 엠파이어 뒤)
★ 코파카바나
★ 산다호텔 디스코 나이트점
TEL : 777-2497

근대의 리

尹時林 <56>



사색의 배

革命의 時代

홍수물의 자유와 사상의 해방을 위한 사상의 투쟁의 시대에는 이 「홍수」의 「홍수」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홍수물의 자유와 사상의 해방을 위한 사상의 투쟁의 시대에는 이 「홍수」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까지 홍수물의 자유와 사상의 해방을 위한 사상의 투쟁의 시대에는 이 「홍수」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홍수물의 자유와 사상의 해방을 위한 사상의 투쟁의 시대에는 이 「홍수」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홍수물의 자유와 사상의 해방을 위한 사상의 투쟁의 시대에는 이 「홍수」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까지